

금호타이어 노사 평행선... 지역 경제계 '긴장'

최종교섭 불발시 오늘부터 무기한 부분 파업

채권단 지원 매각 절차 착수...임단협 새 변수로

금호타이어 노사가 15일 무기한 부분파업을 앞두고 최종교섭을 벌이고 있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파업국면으로 장기화되면서 침체된 지역경제가 또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지난 주말 결렬됐던 임단협 교섭을 연장 교섭에 착수, 밤 8시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15일 이후 노조의 무기한 4시간 부분파업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파업만은 막자"는 막판 교섭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노사가 쟁점 사항을 두고 점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결

론 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노사는 12·13일 양일간 본교섭을 이어가며 임금피크제 도입과 품질향상협력금 명목의 일시금 350만원 이상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해 경영실적 급감과 시장환경의 어려움을 들어 일시금 상향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사측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300만원의 일시금 지급 안을 내놓은 상

태다. 파업 예고와 관련 회사는 노조가 부분 파업에 들어가면 비상 근무조와 대체인력을 투입해 파업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생산 차질과 매출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면파업으로 1500억원의 매출손실을 겪은 만큼 이번 파업도 장기화될 경우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노사 임금협상과는 별도로 금호타이어 지분 42.1%를 소유한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 절차에 착수, 향후 노사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 일가가 금호산업 인수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금호타이어 지분을 팔아 현재 그룹 계열사가 보

유한 소량의 지분 외에는 금호계열이 지닌 금호타이어 주식은 미미한 상태다. 박삼구 회장의 아들인 박세창 부사장이 금호타이어 사장으로 오지 않고 지난달 그룹전략경영실 사장으로 발령이 났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박삼구 회장에게 우선매수 청구권이 있긴 하지만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1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국내 기업이나 해외 업체가 인수전에 뛰어들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최근 주식매각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크레디트스위스(CS)를 선정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지난 12일 데이먼 삼성전자 구주총괄 부장(오른쪽)이 AVNews의 브라이언 데니어 에디터로부터 올해의 AV 디스플레이 혁신상을 수상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 '올해의 AV 디스플레이 혁신상'

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삼성전자는 9~12일(현지)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최대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ISE(Integrated Systems Europe) 2016'에서 아웃도어 사이니지가 유럽 지역 유력 오디오·디스플레이 전문 매체인 AVNews가 선정하는 '올해의 AV 디스플레이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출시된 삼성전자 아웃도어 사이니지 시리즈는 46·55형 2개 모델로 영하

30도에서 영상 50도의 외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국제 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IP56 국제규격의 방수·방진 기능을 갖춰 열악한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김석기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전무는 "기업간거래(B2B) 고객을 위한 최고의 제품과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 中企 유럽 시장 공략

중기진흥공단 참가기업 모집

중기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황창범)는 지역 중소기업의 유럽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유럽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기간은 16일부터 29일까지다. 이번 시장개척단 참가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인 광주시 소재 수출중소기업이다.

유럽 시장개척단은 5월1일부터 8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등 유럽 2개 지역에 파견한다.

참가기업은 현지 코트라 무역관의 사전 시장성 검토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되고 선정된 기업은 바이어 발굴과 단체 수출상담 주선, 통역배치, 왕복항공료의 50~70%를 지원받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위기에 더 빛났다... 효성·한화 형제 경영

효성, 그룹 총수 부재에도 작년 사상 최대 실적

한화, 태양광사업 '한화큐셀' 4년만에 흑자전환

그룹 총수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효성그룹과 한화 그룹의 자제들이 맡은 사업분야에서 높은 경영 성과를 올리고 있어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효성에는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형제가 있다. 효성은 지난해 매출 12조4585억원, 영업이익 9502억원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지난 2013년과 비교하면 약 2배(95.5%)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섬유, 산업자재, 화학, 중공업 등 전 사업분야에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실적은 두 형제가 나눠 맡고 있는 스판덱스 및 타이코드 사업의 호전이 배경이 됐다. 조석래 회장 장남인 조현준 사장은 회사 전체 사업 전략을 아우르는 전략본부장과 섬유PG장 등을 맡고 있으며, 삼남인 조현상 부사장은 산업자재

와 화학 분야 등을 담당하고 있다.

효성 내에서 타이코드 등 자동차 관련 사업을 맡고 있는 조현상 부사장은 지난해 인수한 FMK 등기이사에 등재돼 향후 자동차 사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FMK는 국내에 페라리와 마세라티를 수입하는 회사다.

한화그룹의 자제들도 주목받고 있다. 2010년 ㈜한화에 입사한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는 그해 10월부터 한화그룹의 신성장 동력인 태양광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영업과 마케팅을 직접 챙기며, 중국 및 유럽 등에서 영업확대를 이끌어 만성 적자였던 태양광 사업을 흑자로 만들었다.

한화큐셀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효성 조현준사장 조현상 부사장 한화김동관전무 김동원 부사장

연속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지난해 2분기 약 10억원의 영업흑자를 기록한 후 이익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전사혁신실 부실장도 최근 그룹의 차세대 먹거리인 핀테크 사업을 맡으며 전면에 나서고 있다.

2014년 말에 한화건설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받던 한화가 삼남 김동선 과장은 한화가 새롭게 시작하는 면세점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

한편 김승연 한화 회장은 집행유예로, 조석래 효성 회장은 최근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경영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68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7 17 19 30 36 38	3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21,775,911	7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61,562,241	44
3 5개 숫자일치	1,497,368	1,809
4 4개 숫자일치	50,000	90,296
5 3개 숫자일치	5,000	1,509,073

광주 광산업 해외 진출 기업 모집

광산업진흥회, 수출상담·마케팅 등 지원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광주시와 함께 광통신, LED, 레이저, 광소재 등 광산업체의 마케팅 지원과 판로개척을 위해 2016년도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내달 3일까지 마감하는 공모에 참여업

체로 선정된 기업에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및 수출로드쇼 개최는 물론 해외 유망 전시회 공동관 참가지원, 현지 수출상담 지원, 해외프로젝트 컨소시엄 구축·운영, 광통신 유망제품 개발 및 사업화 컨소시엄 구축·운영, 해외마케팅센터(거점)

구축·운영 등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는 빅 데이터(대용량 전송)와 사물인터넷 시대를 맞아 스마트 광통신 부품을 개발하기 위한 컨소시엄을 지원하고, LED조명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인도네시아 LED 보급사업 추진은 물론, 세네갈, 동남아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판로개척등 지원사업을 다양화해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는 차별화된 진흥회의 마케팅 지원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문의 062-605-9624. /김대성기자 bigkim@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악연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식

가족모임

세미나

연회장

상견례

가족모임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홀몰러스 건너편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525-2111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남

-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 공무원(5급~9급) 27~42세
-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 은행원, 연구원 29~49세
-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 사업가, 자영업 29~39세
- 세무사, 연구원 29~48세
-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 교사, 교수 28~49세

추천회원

女

-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 공무원(5급~9급) 27~42세
-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 간호사, 은행원 26~47세
-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 미스코리아, 미스코넷 27~36세

재혼

男

- 의사, 변호사 32~72세
-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 대기업 간부 36~67세
- 회사원, 자영업 33~61세
-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女

- VIP 희망 여성 32~45세
-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 공무원, 교사 32~54세
- 간호사, 회사원 29~48세
- 자영업, 가사 35~60세
-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엔딩 B1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